

VIII. 참고 자료

1. 2014년도 시정연설문
2.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
3. 2014년도 예산의 목 구분

-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

시 정 연 설 문

2013년 11월 26일
제233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상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33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의 도정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시켜 도민들께서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시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도정이 여러 가지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도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시고 계신 도민여러분께도 마음으로부터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동계 올림픽 준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레고 랜드, 춘천~속초 간 철도, 여주~원주 간 철도 등 많은 도정 현안에 앞장서 주신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 함께 해 주신 도민들께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 일들은 강원도 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고 따라서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대부분 비교적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으나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올해 동계 올림픽 특구와 설악산 오색 로프웨이가 늦어진 것은 큰 유감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의 실패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양 공항은 내년에 50만의 승객이 이용하는 계약을 이미 체결한 바 있습니다. 양양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이 분들이 가능한 한 오래 강원도에 머무르도록 하는 우리의 준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를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의 출항도 우리 도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꼭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산 항로와 DBS 크루즈도 내년에는 더 큰 활기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비자면제에 대비한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알펜시아는 경영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매각 등의 해법을 찾는 데 유리한 조건이 형성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 예술 투자와 국제 행사를 통해 가치를 높이면서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국비 5조원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성장률 목표 5.2%를 꼭 달성해 내겠습니다. 계속 늘어나던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서서 걱정을 했으나 다시 반등하여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략 산업,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등 세부 목표들을 잘 점검하겠습니다.

기업 지원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여성-장애인 기업의 판로 지원,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육성도 올해 그 틀을 만들었습니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들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2년간 우리는 오래 묵은 난제들 즉 SOC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춘천~속초 간 철도처럼 30여년 가까이 누적된 문제에서부터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문제에 이르기 까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상당 부분은 해결이 되거나, 해결 중에 있거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새로운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강원도의 도약을 위해 시도하고자 하는 새 발전 방향과 전략은 이른바 ‘중심지’ 전략입니다.

강원도가 극동 아시아 환동해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즉 환동해의 인

력-자본-관광-기술-정보-문화가 강원도를 중심으로 모이고 유통되고 활성화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중심지 전략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잠정적으로 다섯 가지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화입니다.

두 번째는 첨단화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화입니다.

네 번째는 대륙화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동체화 또는 인간화입니다.

첫 번째 전략 목표는 글로벌화입니다. 해외 조직을 강원-차이나, 강원-USA, 강원-저팬으로 확대 강화 재편하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조직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질 강원도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해외에 마케팅 해나가겠습니다.

국내 준비도 강화하겠습니다.

평창을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받겠습니다.

내년 9월에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193개국 2만여 명의 장관급 인사와 전문가들이 참석합니다. 세계적인 또 하나의 빅 이벤트로 강원도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외국어 통역 서비스, 도로 표지판-메뉴판 외국어 표시, 숙박-식당 시설 개선으로 외국인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첨단화입니다. 산업 능력을 빠르게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미 태백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 세계 최초의 플라즈마 발전소, 인공 태양 연구 조직 준비, 3D 프린팅 사업, 뿌리 기술 지원 센터의 유치 등 최첨단 사업을 빠르게 선점하겠습니다.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 기술 등을 기업들에게 이전하거나 창업으로 연결시키는 시스템을 대학들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업에 있어서는 많은 로열티를 주고 있는 백합 등 13개 품종을 개발하고 종자를 선점하기 위한 골든씨드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분야에서는 해삼전용 배양장을 지어 6월 돌기해삼을 대량 생산해 수출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 외에도 특산종과 고가 품종을 길러 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지역화입니다. 내부 소비 결속 즉 소비를 강원도 내부에 머무르게 하고 이것이 내부 생산 결속으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자본과 인력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지역주민이 지역경제의 주체가 되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되는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통화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역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적기업 45개와 마을기업 40개를 육성하고 2018년까지 1,250개의 협동조합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생물다양성 총회, 산불 총회, 전국체전, 동계올림픽에 공급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역 기업이 담당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대륙화입니다. 모두 1조 7천억이 투자될 동해항의 설계를 내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속초항에는 크루즈 5만 톤급 1선석을 착공하여 북극 관광의 시발점을 선점하겠습니다.

시베리아 철도와의 연결에 대비하여 국가 철도망 계획에 2020년 이후 사업으로 되어있는 강릉~제진 간 동해북부선도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계획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동체화 또는 인간화입니다. 부의 편중과 지나친 물질화로 요약되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보완하는 공동체,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끊임없이 추구하겠습니다. 일정 규모의 마을 공동체 안에서 생산-소비-교육-의료-문화가 완결되는 구조를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복지예산은 금년보다 13.3% 늘어난 1조 1,2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에서 시작해서 무상 급식, 대학생들의 등록금, 어르신들, 장애인들에 이르기 까지 전 생애에 걸쳐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이미 본격화되기 시작한 은퇴 장년들 - 55년생 이후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량 은퇴에 대한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탄광지역, DMZ 지역도 활기를 되찾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효도아파트, 효도 수술, 효도방문, 효도전화 등 생활과 아주 밀접해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7곳으로 늘리고 공공 어린이집도 140곳으로 늘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반드시 벗겠습니다.

복지 전달 체계도 정비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보건과 복지 그리고 행정과 민간에 각각 나뉘어져 있던 복지서비스를 합치는 '강원도형 통합전달체계'를 2개 시군에서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4개 시군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진폐의증환자들에게는 20만원의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고용보조금과 진폐단체 일자리 사업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는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하여 대안학교인 '해밀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두드림 아카데미'를 설립합니다. 이들 외에도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도민들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기초아래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9,96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올림픽 투자 등의 영향으로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이 큰 폭으로 늘어 3조 5,211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국비지원과 지방비 부담분은 금년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기금 용자금 회수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이 늘어남에 따라 4,754억 원 규모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중심지 전략, 미래 성장 동력, 도민 복지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보통교부세 수입은 늘지 않았습니다. 반면 세출수요는 동계올림픽 투자, 복지 수요,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으로 인하여 800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즉 수입은 그대로인데 지출할 곳은 많아 재정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은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657억 원)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 올해 (3조 2,593억 원)보다 8.0% 늘어난 3조 5,211억 원으로

- ◆ 산업·중소기업, 농림해양수산, 국토·지역개발 등 경제 분야가 전체 예산의 27.1%인 9,550억 원
- ◆ 복지, 환경, 교육, 문화·관광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분야에 52.3%인 1조 8,404억 원
- ◆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예산은 3.8%인 1,348억 원

- ◆ 인건비 등 운영경비와 예비비 등 기타분야에 16.8%인 5,9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금년(4,578억 원)보다 3.9% 늘어난 4,754억 원으로
- ◆ 강원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 96억 원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2,232억 원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136억 원
지역개발기금(공기업) 특별회계 2,2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우리 강원도가 중심지 전략을 시작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중심지 전략은 인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인구가 적다는 것은 발전의 장애 요인이기도 하지만 단결과 조직화를 목표로 한다면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칭기스칸은 100만의 인구로 세계 최대의 제국을 세웠습니다. 대영제국은 세계 2%의 인구로 전 세계 면적의 25%을 지배했습니다. 지금의 미국은 세계 인구의 4%로 패권 국가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인구 3%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몽골, 대영제국, 미국이 초기 성장기에 추진했던 전략들을 강원도에서도 추진하겠습니다.

바로 중심지 전략입니다. 중심지 전략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변방이 아니고 중심이라는 신념과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전략이 성공한다면 오랫동안 경제 침체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우리 강원도가 이끌어 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은 모두 대한민국을 부활시킬 사업들입니다. 대륙 한국, 통일한국, 북극 항로, 인공 태양, 플라즈마 발전소 등 최첨단 사업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강원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위치가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교하게 준비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예산안은 부족한 재정 속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강원도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들과 복지증진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작성하였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세세히 점검해 주시고 미처 챙기지 못한 지역발전 사업이나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13년 11월 26일

강원도지사 최 문 순